

## 학습장애 학생의 읽기 유창성과 읽기 이해 중재연구에 관한 문헌 분석

김 화 수\*

대구대학교 언어치료학과

김 민 정\*\*

대구대학교 언어치료학과

박 정 숙\*\*\*

우석대학교 유아특수교육학과

---

### 《 요 약 》

---

본 연구는 학습장애 학생의 읽기 유창성과 읽기 이해 중재연구에 관한 국내 문헌 분석을 통해 읽기 중재 연구의 동향을 확인하고 향후 중재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발표된 75편의 연구를 선정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1~5명의 대상자,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 대상 중다기초선설계, 단일 집단 연구가 많았다. 둘째, 중재 환경은 총 11~20회기, 주 3~5회, 회기별 40~50분, 방과 후 학교의 교실에서 이루어졌으며, 중재 목표의 측정은 평가점수를 많이 사용하였다. 중재의 질적 수준 분석에서는 대부분의 연구가 반복 측정, 일반화, 중재 충실도, 사회적 타당도를 기술하지 않았다. 셋째, 교수전략별 분석 결과 독립변수는 독해력 증진 전략, 종속변수로는 읽기 이해를 살펴본 연구가 많았다. 넷째, 읽기 유창성 증진 전략으로 반복읽기가, 읽기 이해 증진에는 내용향상 전략(컴퓨터/멀티미디어 활용), 단일인지전략(책읽기), 복합인지전략(2가지 이상의 단일 전략 활용)이 많이 사용되었다. 결과에 따른 논의점을 살펴보고 향후 중재연구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

주제어 : 학습장애, 읽기 학습장애, 읽기 유창성 중재, 읽기 이해 중재

---

\* 제 1저자

\*\* 교신저자 (mjbonbon@naver.com)

\*\*\* 공동저자

## 1. 서론

학습장애 학생들의 약 80%는 단어를 해독하고 읽은 것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을 가진다(Lerner, 2000). 2014년 국립특수교육원의 특수교육 실태조사에서도 전체 학습장애 대상자 중 글자 읽기에 어려움을 보이는 학생은 15.8%, 독해에 어려움을 보이는 학생은 65%로 나타났다.

읽기 능력은 학업수행과 일상생활 영역에 있어 필수적이고 중요한 기술이다. 이러한 읽기 능력의 부족은 학령기 학습장애 학생을 가장 보편적으로 드러내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 또한 학습장애 학생에 있어 읽기는 중재 영역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성을 가진다(김동일, 이일화, 2010). 읽기 밧줄(reading rope) 이론에 의하면 능숙한 읽기는 단어인지라는 밧줄과 읽기 이해라는 밧줄이 서로 통합되어 유창한 실행과 조정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Scarborough, 2003; Paul & Norbury, 2012/2014에서 재인용). 성공적인 읽기를 위해서는 음운론적 분석을 통해 문자체계를 습득해야 하고, 문장의 의미와 구조를 파악하는 다양한 능력이 필요하다(김동일, 2001). 특히 김주경 외(2006)에 따르면 “조기 연령대의 단어재인 능력은 이후 읽기 이해 능력을 예측” 해주기 때문에 중요하고, 읽기 이해 능력은 학령기 학습을 위한 읽기에 있어 필수적인 능력이므로 반드시 중재되어야 할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읽기장애 학생은 그들 인지 자원의 대부분을 문자해독에 사용하기 때문에 구조를 파악하고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주의능력에 심각한 제한점을 보인다(김동일 외, 2009). 그러므로 초등학교 수준에서 읽기장애 학생을 위하여 정확하고 빠르게 읽는 읽기유창성 및 글을 정확하고 심도 있게 이해하는 능력인 독해력에 대한 교수-중재가 필요하다(김동일, 2000). 윤효진(2016)은 단어재인 정확도와 읽기 유창성을 중심으로 학령기 아동의 읽기 이해 관련 요인을 살펴보았는데, 단어재인 및 해독이 숙달되어 자동화되면 읽기가 유창해지고 이러한 “읽기 유창성은 읽기 이해를 설명하는 가장 예측력 있는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이렇듯 읽기 유창성과 읽기 이해는 성공적인 읽기를 위한 중요한 요소이고, 이를 위한 중재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읽기 영역 중 읽기 유창성과 읽기 이해에 초점을 두고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읽기 유창성 중재에 관한 문헌연구는 김태강, 정은희, 박윤(2011), 이수향(2012), 이원령(2007) 등에 의해 시도되었다. 김태강 외(2011)의 경우 읽기 유창성 실험연구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이었다는 것에 한계점을 가진다. 이수향(2012)도 읽기 유창성에 관한 문헌 연구를 통해 읽기 유창성의 전반적 동향에 대해 알아보았으나, 이는 국외 연구의 고찰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제한점이 있고 저자 또한 국내 연구 수의 부족을 아쉬운 점으로 들고 있다. 또한 이원령(2007)의 경우 11편의

읽기 유창성 중재 문헌을 분석하였으나 그 중 학습장애 대상 연구는 6편으로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

학습장애 대상 읽기 이해 중재에 관한 문헌연구는 김우리, 고은영(2012)에 의해 시도되었다. 김우리 외(2012)의 경우 읽기 이해 중재 연구의 중재 효과 분석을 통해 교사들에게 읽기 이해 중재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만 연구자들도 제한점으로 꼽은 것처럼 분석 논문의 수가 25편으로 적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연구자들은 국내에서는 학습장애를 위한 읽기 중재 문헌 분석연구만 있을 뿐 읽기 영역 중 읽기 이해를 체계적으로 살펴본 문헌 분석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학습장애 대상 읽기 이해 중재에 대한 체계적인 문헌분석이 필요함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습장애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읽기 유창성 중재에 관한 연구, 읽기 이해 중재에 관한 연구는 그 중요성에 비해 연구 수가 부족했고 이로 인해 체계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또한 읽기 유창성 중재와 읽기 이해 중재연구에 관한 문헌을 함께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학습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읽기 유창성 중재와 읽기 이해 중재의 동향을 함께 분석하고 이에 따른 논의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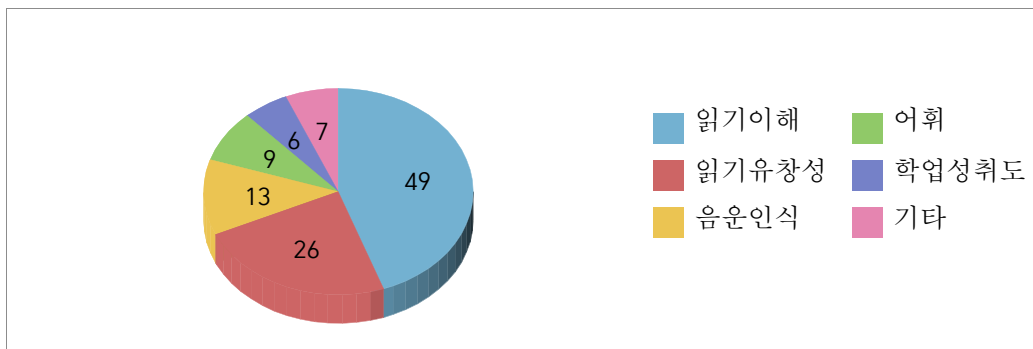
- 첫째, 학습장애 학생의 읽기 유창성에 대한 중재연구의 동향은 어떠한가?
- 둘째, 학습장애 학생의 읽기 이해에 대한 중재연구의 동향은 어떠한가?
- 셋째, 학습장애 학생의 읽기 유창성과 읽기 이해의 어려움을 중재하기 위한 관련 논의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논문 수집

본 연구에서는 학습장애 학생의 읽기 유창성 및 읽기 이해 중재와 관련하여 살펴보기 위해 2007년~2016년까지 RISS, KISS, 국회전자도서관, 뉴논문, DBPIA 데이터베이스의 전자 검색을 실시하였다. 추가연구 확인을 위해 수동으로 관련 논문의 참고문헌을 검색하였다. 전자 검색에 사용한 주제는 ‘학습장애’, ‘읽기 학습장애’, ‘읽기 유창성’, ‘읽기 이해’, ‘독해’, ‘단어재인’, ‘어휘’, ‘읽기 중재’, ‘음운인식’, ‘읽기 학습전략’, ‘읽기 교수전략’, ‘읽기 태도’, ‘학업성취도’ 등으로 검색하거나 검색

어를 적절히 조합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총 393편의 논문이 검색되었고, 연구 논문 선정 기준에 따라 75편의 논문을 분석 대상 논문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최종 선정된 75편의 연구 중 읽기 유창성 중재 연구는 26편, 읽기 이해와 관련한 중재 연구는 49편이었다. 이 중 21편은 읽기 유창성과 읽기 이해 모두를 종속변인으로 한 연구였고 5편은 단어재인과 읽기 이해, 1편은 어휘와 유창성, 1편은 단어재인, 유창성, 읽기 이해 모두를 종속변인으로 한 연구였다. 또한 단어재인 및 음운인식과 관련하여 13편, 어휘 관련 9편, 학업성취도 관련 연구가 6편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연구현황

## 2. 연구논문 선정 기준

분석 대상 논문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10년간 국내에 발표된 학습장애 학생의 읽기 유창성 및 읽기 이해 중재에 관한 석·박사학위 및 학술지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둘째, 학습장애 학생의 행동, 특성에 관련한 논문은 제외하였다.

셋째, 연구 대상은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습장애 학생으로 하였다.

넷째, 읽기 부진, 읽기 저성취, 읽기 장애 위험군과 관련한 논문은 제외하였다.

다섯째, 제목에 종속변수로 읽기와 쓰기를 함께 다룬 논문을 포함하였고, 그중 읽기 영역에만 초점을 두었다.

분석 대상 논문의 유형별 현황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분류	석사학위논문	박사학위논문	학술지게재논문	총
빈도(%)	45(60)	1(1.33)	29(38.66)	75(100)

<표 1>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상 논문의 유형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75편의 논문 중 석사학위 논문이 45편(60%)으로 가장 많이 발표되었으며, 학술지 게재 논문이 29편(38.66%), 박사학위 논문 1편(1.33%) 순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또한 학술지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 현황은 <표 2>와 같다.

<표 2> 학술지 논문 게재 학술지 현황 단위 : 편(%)

학술지명	빈도(%)	총
교육연구	1(3.44)	29(100)
아동교육	1(3.44)	
아동연구	1(3.44)	
언어청각장애연구	1(3.44)	
언어치료연구	1(3.44)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	1(3.44)	
특수교육연구	2(6.88)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1(3.44)	
특수교육저널:이론과 실천	4(13.79)	
특수교육학연구	1(3.44)	
특수아동교육연구	1(3.44)	
학습장애연구	11(37.93)	
학습전략중재연구	3(10.34)	

<표 2>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상 논문의 유형 중 학술지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 현황은 전체 29편의 논문 중 『학습장애연구』에 게재된 논문이 11편(37.93%)으로 가장 많이 발표되었으며,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4편(13.79%), 『학습 전략중재연구』 3편(10.34%) 순으로 나타났다.

### 3. 분석 유형

#### 1) 연구의 일반적 특성

##### (1) 연구 설계 유형

학습장애 학생의 읽기 유창성 및 읽기 이해 중재를 위해 어떠한 연구 설계를 사용하였는지 분석하였다.

(2) 대상자 수

학습장애 학생의 읽기 유창성 및 읽기 이해 중재에 참여한 연구 대상자 수를 1~5명, 6~10명, 11~20명, 21~30명, 30명 이상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3) 대상자 연령

본 연구는 학습장애 학생의 읽기 중재에 관한 것이므로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대상자로 분류하였고, 이 중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1~3학년은 저학년, 4~6학년은 고학년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4) 대상자 성별

학습장애 학생의 읽기 유창성 및 읽기 이해 중재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성별을 분석하였다.

2) 중재 환경 및 질적 수준

(1) 중재 기간

학습장애 학생의 읽기 중재활동 기간을 중재를 실시한 총 회기 수, 주당 횟수, 회기별 실시 시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두 가지 이상의 분류기준에 포함된 연구는 각 분류기준에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2) 중재 장소

학습장애 학생의 읽기 중재활동을 실시한 장소를 학습 도움실, 학교 교실, 특수학급, 학교 내 독립적 공간, 사설 클리닉, 기타, 미제시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3) 자료 처리

학습장애 학생의 읽기 중재활동을 실시한 후 중재 목표의 측정을 어떠한 기준으로 하였는지 분석하였다. 중재 목표 측정 분석틀은 서화자, 서한보미, 박현주(2011)의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정확도, 유창성, C-RIC(전산화된 읽기 평가-교수도구) 점수, 수행 행동을, 문장에 맞는 그림 찾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4) 중재의 질적 수준

중재의 질적 수준은 통합 환경에서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 단일 대상 연구 분석(이미에 외, 2008)의 분석틀을 기준으로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기준에

따라 반복 측정, 유지, 일반화, 관찰자간 신뢰도, 중재 충실도, 사회적 타당도의 6가지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 3) 중재 영역의 교수전략별 분석

중재 영역의 교수전략별 분석은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독립변수는 읽기 교수전략을 의미하며, 분석틀은 유영미 외(2013)의 기준에 따랐다. 유영미 외(2013)는 이대식 외(2006)의 분석틀에 이원령(2007)의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총체적 접근 전략, 다감각중심 읽기 교수전략, 개별 자모음 글자 해부호화 중심 전략, 어휘력 증진을 위한 전략, 독해력 증진을 위한 전략, 읽기 유창성 증진 전략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읽기교수 전략의 세부적인 분석은 이수현(2007)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였다. 6가지 분석틀에 부합하지 않는 연구는 기타로 분류하였다.

종속변수는 중재 목표를 의미하며, 분석틀은 2000년 미국에서 발표된 National Reading Panel 보고서의 연구기반 읽기 교수의 주요 요소를 기준으로 국내 문헌을 분석한 김에화(2006)의 연구를 바탕으로 음운인식 및 글자해독, 어휘, 읽기 유창성, 읽기 이해로 분류하였다. 분석틀에 부합하지 않는 연구는 기타로 분류하였다. 두 가지 이상의 종속변인이 제시된 경우는 이예다나(2010)의 연구를 참고하여 각각의 연구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 4) 집단크기별 분석

연구 집단의 크기에 따라 단일 대상 연구, 단일 집단 연구, 실험 비교 연구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 5) 중재 전략에 따른 분석

중재 전략에 따른 분석은 읽기 유창성 증진을 위한 중재 전략과 읽기 이해 증진을 위한 전략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종속 변수에 읽기 유창성과 읽기 이해를 함께 살펴본 연구를 각각의 연구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 (1) 읽기 유창성 증진을 위한 중재 전략별 분석

읽기 유창성 증진을 위한 중재 전략별 분석은 이원령(2007), 나윤희(2015)의 연구를 바탕으로 선행연구에서 효과성이 검증된 유창성 증진 전략인 반복읽기, 빠른 명명하기, 또래 교수, 미리보기, 의미단위 끊어 읽기, 음운인식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또한 PREP 전략도 읽기 유창성 증진 중재 전략에 포함시켰는데 이점조(2002), 정운기(2003), 장대식(2005)의 연구를 바탕으로 PREP 프로그램을 사용한 훈련이

단어 읽기 기능을 비롯한 읽기 능력을 향상시켰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 (2) 읽기 이해 증진을 위한 중재 전략별 분석

읽기 이해 증진을 위한 중재 전략별 분석은 Gajria et al.,(2007), 김우리 외 (2012)의 연구를 바탕으로 내용 향상 전략과 인지전략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세부 분석틀은 본 연구에 맞게 일부 수정, 보완하였다. 내용 향상 전략은 학생들의 콘텐츠 정보 영역의 이해를 높이고 중재하는 교육용 장치이다(Gajria et al., 2007). 이는 중재하는 교수자의 역할을 중요시하는 전략으로 선행조직자 또는 그래픽 조직자, 시각적 표시 등과 같은 도식화, 컴퓨터나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교수, 사전 지식 활성화, 예측하기, 중요 정보 미리 보기 등의 전략이 포함된다. 인지 전략은 학습을 위해 학습자가 의도적으로 수행하는 인지 과정이며 배우는 법을 가르치는 것으로 학생들이 텍스트에 접근하고 상호 작용하는 방식을 향상시켜 보다 능동적이고 자기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Mayer, 2001). 이는 학습자의 역할을 중요시하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인지전략은 단일 전략과 복합전략으로 구분되며 단일 전략으로는 요약하기, 묻고 답하기, 중심 내용 찾기, text 구조 파악하기, 단락 재진술, 책읽기, 자기질문, 자기점검, 반복읽기 등이 포함된다. 복합전략은 여러 전략의 통합된 사용을 말하며 둘 이상의 단일 전략, 협동 전략적 읽기, 상보적 교수, PREP(PASS Reading Enhancement Program), SQ3R(Survey, Question, Read, Recite, Review) 전략 등이 포함된다.

## III. 연구 결과

### 1. 연구의 일반적 특성

#### 1) 연구 설계 유형

학습장애 학생의 읽기 유창성과 읽기 이해 중재연구의 설계 유형은 중다기초선설계가 27편(36%)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사전사후설계 25편(33.33%), 중다간헐기초선설계 13편(17.33%)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한 분석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설계 유형 단위 : 편(%)

분류	AB	ABAB	ABCBC	교대 중재	사전 사후	중다 기초선	중다간헐 기초선	총계
빈도 (%)	7 (9.33)	1 (1.33)	1 (1.33)	1 (1.33)	25 (33.33)	27 (36)	13 (17.33)	75 (100)

### 2) 대상자 수

학습장애 학생의 읽기 유창성과 읽기 이해 중재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수를 분석한 결과 1~5명의 대상자를 기준으로 연구한 결과가 64편(85.33%)으로 대부분의 연구가 포함되었다. 다음으로 11~20명을 기준으로 한 연구가 4편(5.33%), 6~10명, 3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각 3편씩(4%), 21~30명은 1편(1.33%)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한 분석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 대상자 수 단위 : 편(%)

분류	1~5명	6~10명	11~20명	21~30명	30명 이상	총계
빈도(%)	64(85.33)	3(4)	4(5.33)	1(1.33)	3(4)	75(100)

### 3) 대상자 연령

학습장애 학생의 읽기 유창성과 읽기 이해 중재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연령을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 고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44편(58.66%)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초등학교 저학년에 재학 중인 학습장애 학생이 19편(25.33%), 초등학교 저학년~고학년에 걸쳐 실시한 연구가 6편(8%), 중학생 4편(5.33%), 고등학생 1편(1.33%)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1편(1.33%)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관련한 분석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대상자 연령 단위 : 편(%)

분류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초등학교- 저~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 (초2~중3)	총계
빈도 (%)	19 (25.33)	44 (58.66)	6 (8)	4 (5.33)	1 (1.33)	1 (1.33)	75 (100)

4) 대상자 성별

학습장애 학생의 읽기 유창성과 읽기 이해 중재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성별 분석 결과 남학생이 148명(32.24%), 여학생이 82명(17.86%)으로 남학생의 비율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을 따로 분석하지 않은 연구도 있었는데 229명(49.89%)은 성별이 제시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한 분석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 대상자 성별 단위 : 편(%)

분류	남	여	미제시	총계
빈도(%)	148(32.24)	82(17.86)	229(49.89)	459(100)

2. 중재 환경 및 질적 수준

1) 중재 기간

학습장애 학생의 읽기 유창성과 읽기 이해 중재 기간 분석 결과 첫째, 총 회기 수는 11~20회기를 실시한 연구가 34편(43.58%)으로 가장 많았고, 21~30회기가 18편(23.07%), 30회기 이상 실시한 연구가 18편(23.07%)을 차지하였다. 둘째, 주당 실시된 회기 수는 3~5회를 실시한 연구가 51편(66.23%)으로 가장 많았고, 주 1~2회 실시된 연구가 17편(22.07%)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재활동이 이루어진 회기별 시간은 40~50분이 50편(59.52%)으로 가장 많이 실시되었고, 20~30분 이상 17편(20.23%)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한 분석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7> 중재 기간 단위 : 편(%)

기 준	중재 기간		총계
	빈도	비율(%)	
총 회기 수	1~10회기	8(10.25)	78(100)
	11~20회기	34(43.58)	
	21~30회기	18(23.07)	
	30회기 이상	18(23.07)	
주당 횟수	1~2회	17(22.07)	77(100)
	3~5회	51(66.23)	
	기타	2(2.59)	
	미제시	7(9.09)	
회기별 시간	20~30분	17(20.23)	84(100)
	40~50분	50(59.52)	
	60분 이상	12(14.28)	
	기타	1(1.19)	
	미제시	4(4.76)	

## 2) 중재 장소

중재가 이루어진 장소는 방과 후 학교의 교실에서 진행된 연구가 총 28편(37.33%)으로 가장 많았고, 학습 도움실이 13편(17.33%), 특수 학급 8편(10.66%), 도서실, 회의실 등과 같은 학교 내 독립적 공간에서 이뤄진 연구가 8편(10.66%), 사설 클리닉 6편(8%)으로 나타났다. 기타 중재 장소로는 아동의 가정, 아동복지시설의 프로그램실 등이 있었다. 또한 장소를 제시하지 않은 연구도 9편(12%)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한 분석 결과는 <표 8>에 제시하였다.

<표 8> 중재 장소 단위 : 편(%)

분류	학습 도움실	학교 교실	특수 학급	학교 내 독립적공간	사설 클리닉	기타	미제시	총계
빈도 (%)	13 (17.33)	28 (37.33)	8 (10.66)	8 (10.66)	6 (8)	3 (4)	9 (12)	75 (100)

## 3) 자료 처리

중재 목표 측정 방법 중 가장 많이 사용된 기준은 평가점수로 총 51편(68%)의 연구가 이 기준을 따랐다. 다음으로 정확도가 32편(42.66%)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연구가 평가점수, 정확도를 사용하였다. 그 뒤를 이어 유창성은 6편(8%), 문장에 맞는 그림 찾기가 5편(6.66%), 기타 5편(6.66), C-RIC(전산화된 읽기평가-교수도구)점수, 수행 행동률이 각각 1편(1.33%)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한 분석 결과는 <표 9>에 제시하였다.

<표 9> 자료 처리 단위 : 편(%)

중재목표 측정	평가 점수	정확도	유창성	C-RIC 점수 (전산화된 읽기평가- 교수도구)	수행 행동률	문장에 맞는 그림찾기	기타	총계
빈도 (%)	51 (68)	32 (42.66)	6 (8)	1 (1.33)	1 (1.33)	5 (6.66)	5 (6.66)	101 (100)

## 4) 중재의 질적 수준

학습장애 학생의 읽기 유창성과 읽기 이해 중재연구의 질적 수준을 분석한 결과 첫째, 반복 측정은 75편(100%)의 연구 모두 실시하지 않았다. 둘째, 중재를 마친 후에도 효과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관찰한 연구가 63편(84%)이었다. 셋째, 실험 조건 이외의 환경에서 중재 목표로 한 행동의 일반화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하지 않은

140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8권 제3호)

연구가 69편(92%)이었다. 넷째, 관찰자간 신뢰도가 제시되지 않은 연구가 52편(69.33%)으로 가장 많았고 90% 이상의 신뢰도를 갖춘 연구가 20편(26.66%)로 나타났다. 다섯째, 중재충실도는 61편(81.33%)의 연구가 측정하지 않았다. 여섯째, 사회적 타당도를 측정하지 않은 연구는 69편(92%)이었다. 이와 관련한 분석 결과는 <표 10>에 제시하였다.

<표 10> 중재의 질적 수준 분석 단위 : 편(%)

영역	기준	빈도
반복 측정	미 실시	75(100)
	1회 이상	0(0)
유지	유	63(84)
	무	12(16)
일반화	유	6(8)
	무	69(92)
관찰자간 신뢰도	80% 미만	0(0)
	80% 이상 ~ 90% 미만	3(4)
	90% 이상	20(26.66)
	없음	52(69.33)
중재충실도	유	14(18.66)
	무	61(81.33)
사회적 타당도	유	6(8)
	무	69(92)

3. 중재 영역의 교수전략별 분석

중재 영역의 교수전략별 분석을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독해력 증진을 위한 전략을 독립변수로 한 연구가 31편(41.33%)으로 가장 많았고 어휘력 증진을 위한 전략, 읽기 유창성 증진을 위한 전략, 기타 전략을 사용한 연구가 각각 9편(12%)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중재목표는 읽기 이해력의 변화를 살펴본 연구가 49편(47.11%)으로 가장 많았고, 읽기 유창성 관련 연구 27편(25.96%), 음운 인식 및 글자 해독 관련 연구가 13편(12.5%)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한 분석 결과는 <표 11>에 제시하였다.

<표 11>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 단위 : 편(%)

분류	구분	빈도(%)	총
독립변수	총체적 접근전략	6(8)	75(100)
	다감각중심 읽기 교수 전략	7(9.33)	
	개별 자모음 글자 해부호와 중심전략	4(5.33)	
	어휘력 증진을 위한 전략	9(12)	
	독해력증진을 위한 전략	31(41.33)	
	읽기 유창성 증진을 위한 전략	9(12)	
	기타	9(12)	
종속변수	음운인식 및 글자해독	13(12.5)	104(100)
	어휘	9(8.65)	
	읽기 유창성	27(25.96)	
	읽기 이해	49(47.11)	
	기타	6(5.76)	

#### 4. 집단크기별 분석

집단크기별 분석 결과 단일 집단 연구가 59편(78.66%), 실험 비교 연구가 11편(14.66%), 단일 대상 연구가 5편(6.66%)으로 나타나 단일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많이 이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한 분석 결과를 <표 12>에 제시하였다.

<표 12> 집단 크기별 분석 단위 : 편(%)

연구 설계	단일대상	단일집단	실험비교	총계
빈도 (%)	5 (6.66)	59 (78.66)	11 (14.66)	75 (100)

#### 5. 중재 전략에 따른 분석

##### 1) 읽기 유창성 증진을 위한 중재 전략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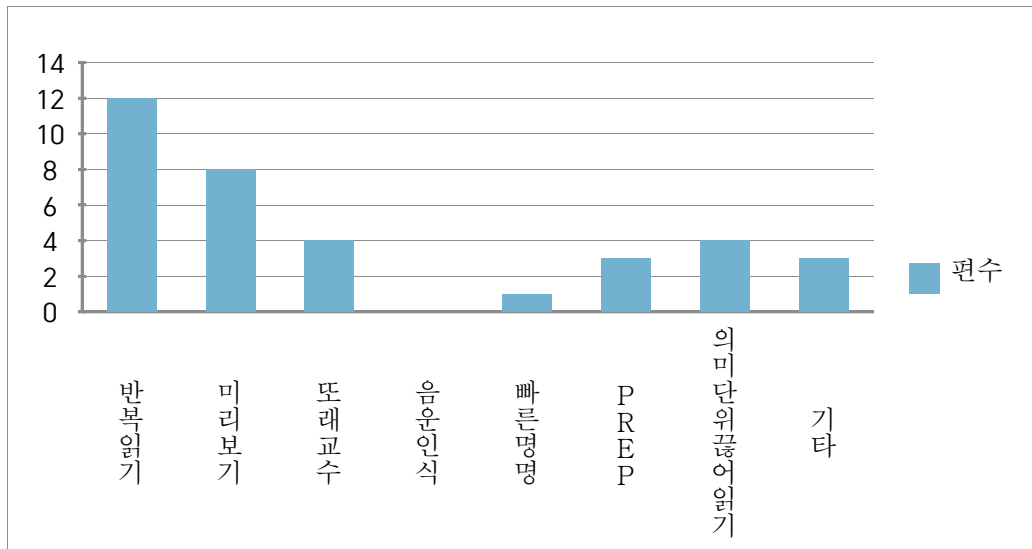
읽기 유창성 증진을 위한 연구는 75편의 분석 논문 중 총 26편이었고, 중재 전략별 분석 결과 반복 읽기 전략이 12편(46.15%)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다음으로 미리보기 전략이 8편(30.76%), 또래 교수가 4편(15.38%), 의미단위 끊어 읽기가 4편(15.38%)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PREP전략, 총체적 전략을 사용한 기타

142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8권 제3호)

연구도 각 3편(11.53%), 빠른 명명하기 1편(3.84%)으로 연구되었고 음운인식 관련 연구는 없었다. 이와 관련한 분석 결과는 <표 13>에 제시하였다.

<표 13> 읽기 유창성 증진 전략

연구	중재 전략	반복 읽기	미리 보기	또래 교수	음운 인식	빠른 명명	PREP	의미단위 끊어읽기	기타
권미영(2015)		✓							
김길순외(2009)						✓			
김택미(2009)		✓	✓						
김영미(2009)				✓					
김영분외(2007)		✓	✓						
김윤미(2008)			✓					✓	
박석순(2012)		✓	✓						
박승태(2010)								✓	
박영미(2007)		✓							
양선례(2008)			✓					✓	
유승연(2008)									✓
이미애(2015)								✓	
이숙(2010)		✓	✓						
이은숙(2009)		✓							
이진우(2011)									✓
이태수(2007)		✓		✓					
이혜선(2009)		✓							
장병철(2009)		✓							
장원석(2010)		✓							
장정숙(2009)							✓		
전진연(2008)									✓
정대영외(2011)			✓						
조태곤외(2009)							✓		
최정미(2008)							✓		
최향윤(2008)		✓	✓	✓					
한승희(2007)				✓					
편수		12	8	4	0	1	3	4	3
(%)		46.15	30.76	15.38	0	3.84	11.53	15.38	11.53



〈그림 2〉 유창성 증진 전략별 분석

2) 읽기 이해 증진을 위한 중재 전략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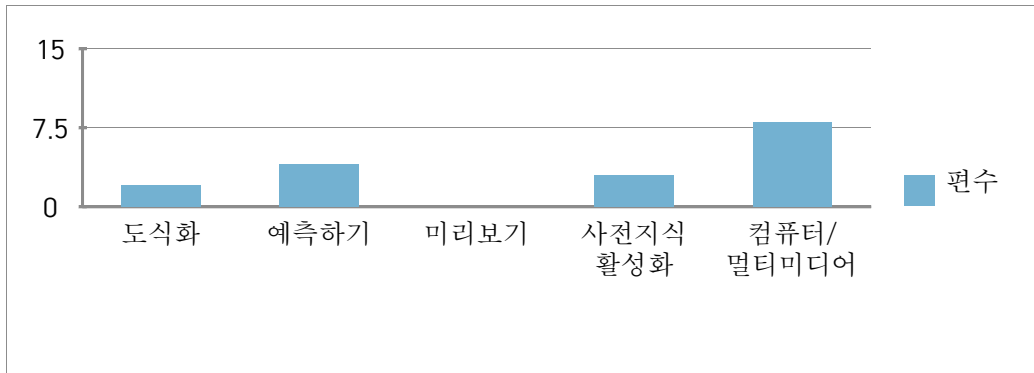
읽기 이해 증진을 위한 연구는 75편의 분석 논문 중 총 49편이었고, 그중 내용향상 전략을 사용한 연구가 14편, 인지전략을 사용한 연구가 39편이었다. 본 연구에서 정대영(2007), 정대영, 하창완(2011), 안승환(2011), 임미주(2009)의 연구는 내용향상 전략과 인지 전략 모두 포함된 연구로 간주하여 분석하였다. 내용향상 전략 분석 결과 컴퓨터/멀티미디어를 이용한 보조학습전략이 8편(57.14%)으로 가장 많았고 예측하기 전략이 4편(28.57%), 사전지식 활성화 전략이 3편(21.42%), 도식화 전략이 2편(14.28%)으로 나타났다. 중요 정보 미리보기 전략은 모든 연구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한 분석 결과는 <표 14>에 제시하였다.

〈표 14〉 내용향상 전략 단위 : 편(%)

연구	중재 전략	내용향상 전략				
		도식화	예측하기	미리보기	사전지식 활성화	컴퓨터/멀티미디어 보조학습
김미애(2007)						√
박승태(2010)						√
안승환(2011)			√		√	
유승연(2008)						√
이승혜(2008)		√				

<표 14> 내용향상 전략(계속) 단위 : 편(%)

연구	중재 전략	내용향상 전략				
		도식화	예측하기	미리보기	사전지식 활성화	컴퓨터/멀티미디어 보조학습
이태수외(2014)						√
임미주(2009)			√			
임상열(2014)						√
전진연(2008)						√
정대영(2007)			√		√	
정대영외(2011)			√		√	
조복자(2009)						√
주진희(2011)		√				
최경란(2009)						√
편수(%)		2 (14.28)	4 (28.57)	0 (0)	3 (21.42)	8 (57.14)



<그림 3> 내용향상 전략

인지 전략은 단일 인지전략과 복합 인지전략으로 구분되며 단일 인지전략 중 책 읽기 전략이 6편(15.38%), 인지 도식화, 자기점검 전략이 각 4편(10.25%), 중심내용 찾기, 요약하기, 반복읽기, 비판적 사고기술 전략이 각 1편(2.56%)이었다. text구조 파악하기와 다시 말하기 전략은 사용되지 않았다. 복합 인지 전략으로는 2가지 이상의 단일전략을 함께 사용한 연구가 9편(23.07%)으로 가장 많았고 SQ3R 전략, 협력 전략적 읽기, PREP 전략이 각 2편(5.12%), 상보적 교수는 1편(2.56%)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일 인지전략과 복합 인지전략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인지 전략을 사용한 연구는 5편(12.82%)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한 분석 결과는 <표 15>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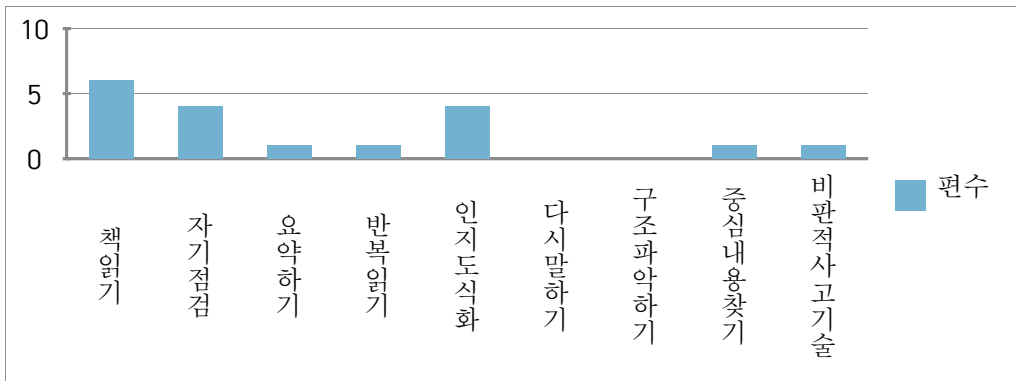


<표 15> 인지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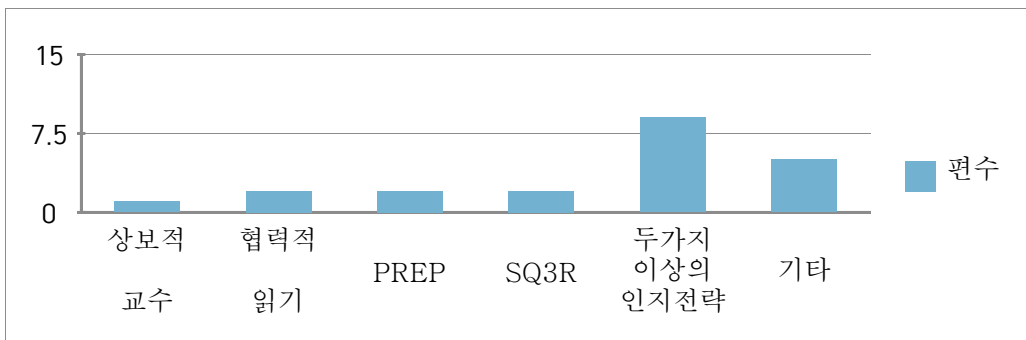
연구	인지전략(단일)									인지전략(복합)					기타 인지 전략
	책읽기	자기점검	요약하기	반복읽기	인지도식화	다시말하기	구조화하기	중심내용찾기	비판적사고기술	상보적교수	협력적읽기	PREP	SQR	2가지 이상의 단일 전략	
강민숙 (2008)														√	
구은정 (2010)									√						
권명숙 (2007)		√													
권정아 (2007)										√					
김덕미 (2009)	√														
김애화외 (2013)					√										
김영미 (2009)												√			
김영분외 (2007)							√								
김윤미 (2008)	√														
김윤민 (2008)															√
김의정외 (2008)														√	
김현지외 (2010)	√														
김혜자 (2008)														√	
박영미 (2007)				√											
박재일 (2008)															√
안승환 (2011)					√										
양민화외 (2016)			√												
양선례 (2008)														√	
양정민외 (2011)								√							
윤지혜 (2010)		√													

<표 15> 인지전략(계속)

연구	인지전략(단일)								인지전략(복합)					기타 인지 전략	
	책 읽기	자 기 점 검	요 약 하 기	반 복 읽 기	인 지 도 식 화	다 시 말 하 기	구 조 약 하 기	중 심 내 용 찾 기	비 판 적 사 고 기 술	상 보 적 교 수	협 력 적 업 기	P R E P	S Q 3 R		2 가 지 이 상 의 단 일 전 략
이경숙외 (2012)													√		
이미애 (2015)															√
이숙 (2010)	√														
이은숙 (2009)	√														
이진우 (2011)															√
이태수 (2007)														√	
이혜선 (2009)														√	
임미주 (2009)		√													
장병철 (2009)														√	
장원석 (2010)														√	
장원욱 (2014)														√	
정대영 (2007)					√										
정대영외 (2011)					√										
정혜란외( 2007)		√													
조태근외 (2009)												√			
최영미외 (2009)															√
최정미 (2008)												√			
최향윤 (2008)										√					
한영미외 (2008)	√														
편수	6	4	1	1	4	0	0	1	1	1	2	2	2	9	5
%	15. 38	10. 25	2. 56	2. 56	10. 25	0	0	2. 56	2. 56	2. 56	5. 12	5. 12	5. 12	23. 07	12. 82



〈그림 4〉 단일 인지전략별 분석



〈그림 5〉 복합 인지전략별 분석

#### I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학습장애 학생의 읽기 유창성과 읽기 이해 중재 연구에 관한 문헌을 분석하여 읽기 유창성과 읽기 이해 중재 연구의 동향이 어떠한지 또 이와 관련한 논의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현황, 연구의 일반적 특성, 중재 환경 및 질적 수준, 중재 영역의 교수전략별 분석, 집단크기별 분석, 중재 전략에 따른 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에 따른 논의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선정된 연구들의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석·박사학위논문은 경우 특수교육을 전공한 연구자들의 연구가 다수를 차지했다. 학술지 게재 논문 29편 중 27편의 연구도 특수교육 분야에 치우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4년 국립특수교육원의 특수교육 실태 국제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장애인교육향상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IDEA, 2004)에서는 특수교육 대상학생을 학습장애를 포함해 13개 영역으로 규정해 전문가를 두고 있고, 이들 중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가장 많이 제공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말·언어병리학자로 나타났다. 또한 학습장애에 관한 부모 인식을 살펴본 주철중(2016)의 연구에서도 학습장애 관련 정보를 어디서 수집할 것인가에 대한 설문에 ‘언어치료실’이라고 응답한 수가 7.3%에 불과하였다는 점은 학습장애에 관한 전문가와 부모들의 인식 모두 언어치료 영역과 관련해서는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Paul & Norbury(2012/2014)는 모든 학습장애가 언어에 기반한 것은 아니지만 2002년 미국교육부 조사 결과처럼 학습장애를 지닌 아동의 80%가 언어기반 기능을 어려워하고 이것은 문식성의 근본적인 결함 때문이며 이에 따른 언어치료사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이러한 점은 향후 학습장애 연구에 있어 언어치료 연구자들이 활발한 연구를 해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관련 전문인과 공동연구를 통해 전문성을 높이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둘째,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논문 총 75편 중 읽기 유창성 중재 연구는 26편으로 읽기 이해 중재에 관한 연구 49편보다 그 수가 적었는데, 앞서 서론에서 전체 학습장애 대상자 중 읽기 유창성보다 읽기 이해에 어려움을 보이는 대상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점은 읽기 유창성 중재 연구 수가 적은 이유를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중재 영역의 교수전략별 분석 결과 독립변수로 독해력 증진 전략이 많았고, 종속변수는 읽기 이해력을 살펴본 연구가 많았다는 점에서 확인되었다. 이는 학습장애 학생들의 읽기 문제를 나타내는 난독증이나 읽기 유창성의 문제들이 읽기 이해 장애보다 적은 데서 기인할 수도 있다(한글 특성상 읽기 유창성 장애가 읽기 이해 장애보다 적게 발생한다는 그러한 요인들에서 이러한 연구들이 적었다고 추정된다). 김길순(2008)에 따르면 한글의 특성에 대해 “배우기 쉽고 배운 것이 새로운 단어를 읽는데 전이가 잘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읽기 유창성은 읽기 이해를 설명하는 가장 예측력 있는 요인”(윤효진, 2016)이며, “단어재인과 이해 능력을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읽기의 궁극적인 목적인 읽기 이해를 위해 읽기 유창성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이수향, 2012). 이처럼 읽기 유창성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영역이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읽기 유창성에 대한 중재가 더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연구의 일반적인 특성을 분석한 결과, 연구 설계 유형은 중다기초선설계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중재 대상자의 수는 1-5명을 기준으로 한 연구가 85.71%로 대부분이었으며 특히 2-3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았다. 이는 중다기초선설계가 가장 많이 사용된 점과 연관 지어 생각할 수 있다. 대상자 연령은 초등학교 고학년 학습장애 학생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초등학교 고학년에 들어서며 “읽기 이해의 문제가 표면화되는 시기”(김우리 외, 2012)로 접어든다는 점에서 이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읽기 장애 학생들은 또래 기준과 비교해 읽기 수준의 다양한 편차를 보이며, 저학년에 읽기의 어려움을 나타낸 학생들은 고학년이 되어서도 지속하여 어려움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정귀연, 김화수, 이근용, 2014). 이러한 점은 초등학교 저학년의 학습장애 학생들이 그대로 읽기의 문제를 가지고 고학년으로 올라가기 전, 즉 '읽기 문제가 표면화되기 전'인 조기에 읽기 능력을 평가하고 중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본 연구에서 학습장애 학생의 성별을 조사한 결과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많은 비율로 나타났다. Hallahan & Kauffman(2003)에 따르면 여학생보다 3배 더 많은 남학생들이 학습 장애를 가진 것으로 밝혀졌지만 실제 연구 결과 남학생과 여학생이 동등한 비율로 읽기 문제로 인한 학습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남학생들의 비율이 더 많이 조사되는 것은 남학생이 과잉 행동과 같은 다른 행동으로 인해 학문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특수 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여학생에 비해 더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도 조기 평가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성별의 문제가 아닌 학습장애 자체로의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 중재의 질적 수준을 분석한 결과 80%가 넘는 연구에서 중재 충실도와 사회적 타당도를 측정하지 않았다. 중재 충실도는 중재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신뢰도를 확보하는데 중요한 부분이고 사회적 타당도는 중재 목표의 적절성, 절차 적용의 효용성 및 중재 결과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주므로 중요한 요소이다(Schwartz & Baer, 1991; 강은영 외, 2014에서 재인용).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 시 이러한 질적 지표의 확보를 통해 중재연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인 연구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 향후 이루어질 학습장애 학생의 읽기 유창성 중재와 읽기 이해 중재 연구 수행에 있어 질적 지표에 대한 연구자들의 인식 변화와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중재 전략에 따른 분석 결과 읽기 유창성 향상을 위한 전략으로 반복읽기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반복읽기 전략은 읽기장애 학생에게 읽기 유창성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전략 중 공통적으로 제시되는 전략이라고 한 NRP(2000)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반복읽기 전략은 일반 아동뿐만 아니라 학습장애 아동에게도 효과적이라는 것이 선행연구를 통해 뒷받침되고 있다(Sindelar, Monda & O'Shea, 1990; Nelson, Alber & Gordy, 2004; Chard, Vaughn & Tyler, 2002; Mercer et al., 2000; 이혜선, 2009에서 재인용). 이에 반해 음운인식 전략을 유창성 향상 전략으로 사용한 연구는 없었는데 본 연구에서 살펴본 읽기 중재 연구들은 학습장애를 언어성 학습장애와 비언어성 학습장애로 나눠서 읽기 중재를 실시하지 않았다. 비언어성 학습장애의 경우 언어의 문제가 아니므로 음운인식의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언어성 학습장애는 음운인식이 필요하나 분석 논문 연구자들이 따로 나눠서 중재한 것이 아니므로 음운인식의 효과 기준이 드러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언어치료 연구에서는 음운인식 중재를 통해 읽기 유창성이 향상된다는 논의가 있었다(김선옥, 조희숙, 2004; 김지영, 권요한, 2014; 박진원, 2013; 최성규, 손옥향, 2004). 국내에는 학습장애 대상 음운인식을 통한 읽기 유창성 중재 연구들이 드물었다. 나윤희(2015) 또한 음운인식이 읽기 유창성 향상에 효과적이라고 한 연구가 다수 있다고 하였으나 대부분의 연구가 읽기 부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것을 제한점으로 들고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학습장애 대상 음운인식의 주 효과에 대한 검증들이 나타난 연구들이 필요하리라 하겠다.

마지막으로, 학습장애 학생을 위한 읽기 유창성 중재에서는 특정 전략인 반복읽기가 많이 사용되었으나 읽기 이해 중재를 위해서는 다양한 전략적 접근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2가지 이상의 단일 인지 전략이 복합적으로 사용된 연구가 많았다. 이는 서화자 외(2011)에 따르면 학습장애 학생들의 읽기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읽기 이해 전략을 교수할 뿐만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구조와 단서, 그리고 형식들이 필요하다”고 한 점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NRP(2000)에 따르면 읽기 이해 능력 증진을 위해서는 단일 전략을 쓰는 것보다 몇 가지 전략을 한꺼번에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학습장애 학생 개개인의 수준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읽기 이해 전략을 찾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읽기 이해 중재 방향에 있어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최근 10년간의 연구를 대상으로 하였고, 분석 대상 논문 중 특히 읽기 유창성에 관련한 연구의 수는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국내에서 실시된 중재 연구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읽기 유창성과 읽기 이해 중재의 국외 연구 분석을 통해 동향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살펴본 분석 논문들은 학습장애를 언어성/비언어성으로 구분하지 않고 읽기 중재에 접근하였다. 언어성 학습장애는 음의 변별, 구문론, 의미론 등의 언어 영역에서의 결함이며 비언어성 학습장애는 비언어적 사고와 추론, 시각적 주의집중 등에서의 결함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 언어성/비언어성 학습장애로 구분하여 언어에 기반한 중재를 비교해 볼 수 없었다는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추후 연구에서는 언어성 학습장애와 비언어성 학습장애의 구분을 통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제언한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중재 프로그램의 효과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효과분석을 통해 학습장애 학생의 읽기 중재 시 지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줄 수 있기를 제언한다.

## 참고문헌

- 국립특수교육원 (2014). **특수교육 실태조사**.
- 국립특수교육원 (2014). **특수교육 실태 국제동향 보고서**.
- 강은영, 박은정 (2014). 학습장애 영역의 질 높은 중재연구 적용을 위한 제안. **특수교육학 연구**, 49(2), 131-156.
- 김길순 (2008). 학습장애아를 위한 음운인식 지도방안. **학습장애연구**, 5(2), 85-105.
- 김동일 (2000). 읽기장애 아동의 진단과 지도를 위한 읽기오류 분석 연구: 초등교사의 지각을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1(1), 97-116.
- 김동일 (2001). 학습장애 아동의 발달과 교육 : 읽기발달과 읽기장애를 중심으로. **발달장애 학회지**, 5(2), 1-15.
- 김동일, 고은영, 정소라, 이유리, 이기정, 박중규, 김이내 (2009). 국내 학습장애 연구의 동향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10(2), 283-347.
- 김동일, 이일화 (2010). 읽기 저성취 초등학생의 언어 지식과 독해력과의 관계. **학습장애연구**, 7(1), 27-45.
- 김선옥, 조희숙 (2004). 유아의 음운 처리과정이 읽기에 미치는 영향: 단어 읽기와 문장 읽고 이해하기를 중심으로. **한국유아교육학회**, 24(1), 215-240.
- 김우리, 고은영 (2012). 국내 학습장애 읽기이해 중재의 효과분석. **학습장애연구**, 9(3), 179-203.
- 김애화 (2006). 학습장애 학생을 위한 중재연구에 관한 문헌분석.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7(2), 265-299.
- 김주경, 김자경, 강혜진, 서주영 (2006). 다중지능을 활용한 교수가 학습장애아동의 읽기능력에 미치는 효과.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45(4), 301-324.
- 김지영, 권요한 (2014). 동요를 활용한 음운인식훈련이 언어장애를 동반한 지적장애 학생의 음운인식과 읽기능력 및 단어재인에 미치는 효과. **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학회**, 5(2), 105-133.
- 김태강, 정은희, 박윤 (2011). 읽기 유창성 관련 실험연구 문헌분석: 2001년-2011년 국내 연구 중심으로.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2(3), 475-506.
- 나윤희 (2015). 읽기 유창성 신장을 위한 교수학습 방안 연구: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 박진원 (2013). 음운인식프로그램의 읽기유창성 효과. **대구보건대학 논문집**, 33, 25-37.
- 서화자, 서한보미, 박현주 (2011). 단일대상연구를 중심으로 한 학습장애 아동의 읽기 중재 연구 분석. **학습장애연구**, 8(3), 53-80.
- 유영미, 박순길, 김영숙, 서아람 (2013). 학습장애 분야 국내 중재연구 고찰. **특수아동교육연구**, 15(3), 45-65
- 윤효진 (2016). 학령기 아동의 읽기이해 요인: 단어재인정확도와 읽기유창성을 중심으로. **언어 치료연구**, 25(4), 109-118.
- 이대식, 김수연, 이은주, 허승준 (2006). **통합교육의 이해와 실제**. 서울: 학지사.

152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8권 제3호)

- 이미애, 권희연, 전병운, 한성희 (2008). 통합 환경에서의 장애유아 중재 연구 동향 분석: 단일 대상연구를 중심으로. **유아특수교육연구**, 8(3), 21-40.
- 이수향 (2012). 읽기 유창성에 관한 문헌연구. **말소리와 음성과학**, 4(4), 129-138.
- 이수현 (2007). 읽기 학습장애아의 읽기능력 향상을 위한 교수 전략에 대한 국내 연구 동향.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원령 (2007). 학습장애아동의 읽기 명명속도와 유창성 중재방법에 대한 고찰.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46(2), 35-57.
- 이에다나 (2010). 학습장애 학생을 위한 읽기 중재의 메타 분석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이점조 (2001). PREP에 의한 훈련이 읽기장애 아동의 동시적/연속적 처리기능과 단어읽기에 미치는 효과. 박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이혜선 (2009). 반복읽기와 질문전략을 결합한 읽기중재가 초등학교 저학년 읽기장애 학생의 읽기이해와 읽기유창성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 정귀연, 김화수, 이근용 (2014). 학령기 읽기장애 아동의 하위그룹에 따른 실행기능 특성.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5(2), 109-125.
- 정운기 (2003). PREP의 연속적 처리 훈련이 경도정신지체아동의 단어 재인능력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주철중 (2016). 학습과 언어, 학습장애에 대한 부모의 인식.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최성규, 손옥향 (2004). 음운의 소리합치기 방법을 통한 정신지체아동의 읽기 지도 효과. **한국언어치료학회**, 13(1), 111-131.
- 최정미 (2007). PREP에 의한 인지과정 훈련이 학습장애아의 읽기기능에 미치는 효과. 박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Gajria, M., Jitendra, A. K., Sood, S., & Sacks, G. (2007). Improving Comprehension of Expository Text in Students With LD: A Research Synthesis. *Journal of Learning Disabilities*, 40(3), 210-225.
- Hallahan, D. P., & Kauffman, J. M. (2003). *Exceptional learners: Introduction to special education(9th ed)*. Boston: Allyn & Bacon.
- Lerner, J. (2000). *Learning disabilities(8th ed)*. Boston: Houghton Mifflin.
- Mayer, R. E. (2001). What good is educational psychology? The case of cognition and instruction. *Educational Psychologist*, 36(2), 83-88
- National Reading Panel (2000). Teaching children to read: An evidence base assessment of the scientific research literature on reading and its implications for reading instruction. 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 Washington, DC.
- Paul, R., & Norbury, C. F. (2014). **영유아에서 청소년까지 언어발달장애 (Language Disorders from Infancy through Adolescence, 4th ed)**. 김화수, 김성수, 박소현, 정부자, 이상경, 이은정, 권유진 역. 서울: 박학사.



## 분석대상논문

- 강민숙 (2008). 이야기 구성도를 활용한 요약하기가 읽기학습장애 학생의 이야기 회상 능력과 이야기 이해력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 강아름, 김자경 (2009). 자기점검을 통한 시험전략 교수가 학습장애아동의 읽기 성취에 미치는 효과. **한국아동교육학회**, 18(2), 35-47.
- 구은정 (2010). 반복읽기 중심의 상급학생 또래교수 중재가 학습장애학생의 읽기능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권명숙 (2007). 동화자료를 활용한 자기감독 프로그램이 학습장애 아동의 읽기과제 성취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권미영 (2015). 마음챙김기반 읽기중재가 학습장애 학생의 주의집중행동 및 읽기유창성에 미치는 효과.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4(2), 1-29.
- 권정아 (2007). 협동적 읽기·쓰기 통합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학습장애 학생의 읽기·쓰기 능력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 김길순 (2008). 음운인식 훈련이 학습장애아의 음운인식 및 단어제인과 철자쓰기에 미치는 효과. 박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길순, 송찬원, 변찬석 (2009). 빠른 명명하기 훈련이 학습장애아의 명명속도와 읽기 유창성에 미치는 효과. **학습장애연구**, 6(2), 151-171.
- 김택미 (2009). 균형적 읽기 지도가 읽기장애아동의 읽기 능력개선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미애 (2007). 멀티미디어 동화 중심의 총체적 언어학습이 학습장애아동의 읽기 능력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병찬, 김운옥 (2010). 독해·내용정리전략이 학습장애학생의 국어과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 **학습전략중재연구**, 1(2), 95-112.
- 김성숙 (2008). 초등학교 학습장애 학생을 위한 어휘획득전략이 어휘력 신장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성숙, 김운옥 (2008). 어휘획득 전략 훈련프로그램이 초등학교 학습장애 학생의 어휘력 신장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연구**, 15(2), 281-307.
- 김애화, 김의정, 강은영 (2013). 이야기 지도 전략 교수가 읽기장애학생의 읽기이해 성취도에 미치는 효과.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4(2), 67-95.
- 김애화, 김의정, 이윤미 (2015). 체계적·명시적 음운규칙 교수가 읽기장애학생의 음운변동이 적용되는 단어인지에 미치는 효과. **학습장애연구**, 12(1), 201-222.
- 김애화, 김의정, 표소래 (2011). 스크립트화된 합성 파닉스 교수가 읽기장애학생의 한글 단어 인지에 미치는 효과.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2(3), 613-638.
- 김연희, 김운옥 (2011). 초등학교 학습장애 학생들의 독해전략 학습과 일반화. **학습전략중재연구**, 2(2), 81-106.
- 김영미 (2009). 또래주도 SQ3R전략이 초등학교 학습장애아의 읽기능력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154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8권 제3호)

- 김영분, 조정연 (2007). 동화읽기 프로그램이 학습장애 학생의 언어표현력에 미치는 영향. **언어치료연구**, 16(4), 161-180.
- 김윤미 (2008). 동화 구연이 학습장애아동의 읽기 능력 신장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윤민 (2008). 어휘획득전략의 적용이 학습장애 아동의 독해력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의정, 최혜승, 권택환 (2008). 다 전략 읽기교수를 통한 초등학교 고학년 읽기학습장애아동의 설명문 이해력 향상. **특수교육연구**, 15(2), 239-263.
- 김현지, 김자경 (2010). 그림책 읽어주기가 초등 고학년 읽기장애 학생의 독해력에 미치는 효과. **학습장애연구**, 7(2), 175-194.
- 김혜자 (2008). 다시 말하기와 이야기 구성도의 병행교수가 읽기학습장애 아동의 독해력 및 읽기 태도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 박미영 (2007). 음운인식훈련이 학습장애 아동의 읽기 및 쓰기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석순 (2012). 생활중심 신문활용교육(NIE)이 학습장애아동의 수용어휘력, 읽기 유창성, 쓰기 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선희 (2008). 삽화 자극과 시지각 훈련 프로그램이 읽기장애 아동의 어휘인지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승태 (2010). 영상콘텐츠 중재가 읽기장애 아동의 읽기능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영미 (2007). 반복읽기 프로그램이 읽기장애아의 읽기 유창성과 읽기 이해력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 박영숙 (2007). '호랑이 문장작성전략'이 초등학교 학습장애 학생의 읽기 및 쓰기 학업성취도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재일 (2008). '호랑이문장작성전략'이 초등학교 학습장애아동의 독해력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변찬석, 김길순 (2008). 음운인식 훈련이 학습장애아의 단어재인에 미치는 효과.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9(3), 331-351.
- 안승환 (2011). 과정중심 동시 읽기 지도가 학습장애아의 독해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 안희정 (2016). 가정과 연계한 이야기꾸미기활동이 초등학교 학습장애아동의 어휘력과 쓰기 능력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 양민화, 김보배, 이애진, 강소영, 정혜림 (2016). 직접교수를 통한 요약하기 전략 교수가 읽기 장애 학생들의 설명글 이해에 미치는 효과. **학습장애연구**, 13(2), 101-122.
- 양선례 (2008). 다요소 읽기 중재가 읽기 학습장애아의 읽기 유창성과 이해력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 양정민, 김애화 (2011). 직접교수 원리를 적용한 주인공 의도 파악하기 교수가 읽기장애학생의 읽기이해에 미치는 영향. **학습장애연구**, 8(3), 195-215.

- 유승연 (2008). 동화를 활용한 총체적 언어교육 활동이 학습장애아의 읽기능력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윤지혜 (2010). 자기점검전략이 읽기장애 학생의 독해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 이강덕 (2008). 어휘획득전략 훈련이 읽기 학습장애 아동의 어휘 이해 및 활용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 이경숙, 천희영 (2012). 학습장애 아동의 독해력에 대한 SQ3R 독해 전략 프로그램의 효과 사례연구. **아동연구**, 21, 27-44.
- 이기범, 김윤옥 (2010). 학습장애 초등학생의 국어과 학업성취도와 자기효능감에 대한 어휘 획득전략의 교수 효과. **학습전략중재연구**, 1(1), 111-133.
- 이미애 (2015). 의미단위 띄어 읽기 전략이 읽기장애아동의 읽기유창성 및 독해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 이복희 (2007). 마인드맵을 적용한 언어지도에 따른 학습장애 아동의 어휘력 변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 이성용, 연보라 (2010). 총체적 언어교육 프로그램이 학습장애 학생의 단어재인 능력에 미치는 효과. **교육연구**, 49, 113-132.
- 이숙 (2010). 교사의 동화 읽어주기 활동이 초등학교 학습장애아의 읽기능력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승혜 (2008). 그래픽 조직자를 활용한 이야기 문법 교수가 초등학교 5학년 읽기학습장애 학생의 독해력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 이은숙 (2009). 학습장애 아동의 읽기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적용 효과. 석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 이진우 (2011). 주의집중훈련프로그램이 학습장애 아동의 읽기능력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 이창수 (2007). ICT 활용교육이 학습장애아의 낱말 읽기와 쓰기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사례 연구.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태수 (2007). 반복 읽기(RCR)와 SQ3R 독해전략이 읽기장애 아동의 읽기 유창성과 읽기 이해에 미치는 효과. **특수교육학연구**, 41(4), 133-147.
- 이태수, 류재연 (2014). 증강현실 기반 언어교육 프로그램이 학습장애 학생의 언어능력 및 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 **학습장애연구**, 11(1), 31-52.
- 이혜선 (2009). 반복읽기와 질문 전략을 결합한 읽기중재가 초등학교 저학년 읽기장애 학생의 읽기이해와 읽기유창성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 임미주 (2009). 예측하기와 자기질문 전략의 병행훈련이 읽기 학습장애아동의 독해력과 읽기 태도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 임상열 (2014). 디지털 동화를 활용한 총체적언어학습 프로그램이 초등 학습장애아동의 읽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 장병철 (2009). 이야기 재연 전략교수와 직접교수가 읽기장애 아동의 읽기 유창성과 이해력에 미치는 효과 비교.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 2(2), 123-142.

- 장원석 (2010). 마인드맵 기법을 활용한 다시말하기 전략이 읽기학습장애 중학생의 읽기 유창성과 읽기 이해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 장원욱 (2014). 이야기 구성도를 활용한 다시 말하기 전략이 초등 읽기학습장애 학생의 독해력과 읽기 태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 장정숙 (2009). PREP 프로그램이 중학교 학습장애학생의 인지기능 및 읽기기능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일반대학원.
- 전진연 (2008). e-book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학습장애아의 읽기 능력 향상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군산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대영, 이수자 (2007). 과정 중심의 읽기 훈련이 읽기 학습장애아동의 독해력, 읽기 상위인지 및 읽기 태도에 미치는 효과. **학습장애연구**, 4(1), 1-24.
- 정대영, 하창완 (2011). 그래픽구성도 작성 전략 중심의 읽기 수업이 읽기 학습장애 고등 학생의 읽기 유창성과 이해력에 미치는 영향. **학습장애연구**, 8(1), 43-63.
- 정혜란, 박현숙 (2007). 자기감독 중재를 이용한 읽기지도가 초등학교 저학년 읽기장애 학생의 수업 중 과제수행행동 및 읽기성취에 미치는 효과. **언어청각장애연구**, 12(1), 334-358.
- 조복자 (2009). 텔레비전 광고 프로그램이 읽기장애 아동의 독해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 조태곤, 민천식 (2009). PREP의 동시적 연속적 처리훈련이 읽기학습장애 아동의 읽기기능에 미치는 영향. **학습장애연구**, 6(2), 195-215.
- 주진희 (2011). 그래픽 조직자를 활용한 읽기 텍스트 수정이 학습장애학생의 읽기 동기 및 독해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경란 (2009). 영상동화를 활용한 반응중심 감상활동이 읽기장애 아동의 읽기능력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선아 (2011). 놀이 중심 국어 학습 활동이 학습장애아동의 언어 사용 능력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세민 (2011). 작업기억 활성화 훈련이 학습장애아동의 어휘습득과 언어과제수행 및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학습장애연구**, 8(2), 31-46.
- 최영미, 김자경 (2009). 본문회고전략 중재가 읽기장애아동의 독해력에 미치는 효과.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 10(3), 283-301.
- 최정미 (2008). PREP에 의한 인지과정 훈련이 학습장애아의 읽기기능에 미치는 효과. **학습 장애연구**, 5(2), 135-164.
- 최향운 (2008). 협동적 읽기방략이 학습장애아동의 읽기 유창성과 이해력에 미치는 효과. 석사 학위논문, 창원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 한승희 (2007). 전래동화를 활용한 또래교수 프로그램이 읽기학습장애 아동의 읽기유창성과 학업적 자아개념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 한영미, 박현숙 (2008). 책 읽어주기 활동이 읽기장애 초등학교 학생의 읽기 이해력 및 듣기 이해력에 미치는 효과. **특수아동교육연구**, 10(4), 19-37.
- 황혜경 (2007). 국어과 독해, 내용정리 전략이 초등학교 학습장애 학생의 국어과 학업성취도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대학원.

Literacy analysis of the reading fluency and  
reading comprehension intervention studies  
for students with learning disabilities

**Kim, Wha-Soo**

Daegu University

**Kim, Min-Jeong**

Daegu University

**Park, Jung-Sook**

Woosuk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trends in reading intervention studies and to suggest directions for future intervention studies. This study analyzed the domestic literatures on the reading fluency and reading comprehension intervention studies for the students with learning disabilities. To do this, this study selected 75 studies from 2007 to 2016.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number of subjects was usually 1 to 5, and there were many multiple baseline designs for male students of upper grade elementary school, and also there were many single group studies. Second, the intervention environments consisted of 11 to 20 sessions, each of which were 3 to 5 sessions per a week, 40 to 50 minutes per a session, mostly in after-school classrooms. And the measure of the intervention goals used evaluation score. In the qualitative analysis of interventions, most studies did not describe repeat measures, generalizations, intervention fidelity, and social validity. Third, there were many studies on reading comprehension strategy as independent variable and reading comprehension as dependent variable. Fourth, contents improvement strategy(using computer/multimedia), single cognitive strategy(reading) and multiple cognitive strategy(using two or more single strategies) were frequently used to improve reading fluency. This paper examined the discussion points of the results and suggested the direction for the future intervention studies.

**Key Words :** Learning disability, reading learning disability, reading fluency intervention, reading comprehension intervention

---

논문 접수: 2017. 06. 12 심사 시작: 2017. 06. 12 게재 확정: 2017. 07. 14